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 준공식 성대히 진행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준공식에 참석하시었다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에 새로 정중히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의 동상제막과 야영소준공식이 5월 2일 성대히 진행되었다.

환영곡이 울리는 가운데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준공식장에 나오시었다.

순간 후대들에 대한 숭고한 사랑의 세력사를 수놓으시며 사회주의문명강국의 휘황찬란한 태일을 안아오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우리러 더쳐올리는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성이 하늘땅을 진감하였다.

준공식은 《김일성장군의 노래》, 《김정일장군의 노래》주악으로 시작되었다.

준공식에서는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의 동상이 제막되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의 동상제막을 당 책임일꾼들과 군대, 야영소의 일꾼들이 하였다.

하늘땅을 뒤흔들며 우렁찬 《만세!》의 환호성이 터져오르고 고무풍선들이 날아올라 준공식장상공을 환희롭게 장식하였다.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과 김정일대원수님의 동상에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존함을 모신 꽃바구니가 진정되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의 공동명의와 전체 조선소년단원들의 명의로 된 꽃바구니들이 진정되었다.

또한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중앙위원회, 조선소년단 강원도, 시, 군 연합단체,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 도내 당, 정권기관, 청년동맹, 대학, 학교 등의 명의로 된 꽃바구니들이 진정되었다.

전체 참가자들은 조국의 통성변영과 인민의 행복, 후대들의 밝은 미래를 위하여 끝없는 로고와 헌신의 자욱을 새겨오신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과 김정일대원수님의 불멸의 혁명생애를 되새기며 대원수님들의 동상을 우리러 삼가 인사를 드리었다.

최종해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가 제막 및 준공사를 하였다.

준공식이 끝나자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우리러 전체 참가자들이 터치는 우렁찬 《만세!》의 환호성이 천지를 뒤흔들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크나큰 걱정에 휩싸여 목청껏 환호를 올리며 참가자들에게 따듯이 손을 저어주시었다.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 준공을 축하하는 체육문화행사가 2일 현지에서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동해명승 송도원의 자연풍치와 어울리게 훌륭히 건설된 야외운동장에서는 전국소년축구경기대회 결승경기가 진행되

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관람석에 나오시었다.

전체 관람자들과 선수들은 후대들에게 물려줄 또 하나의 귀중한 재부인 세계일류급의 과외문화생활기지를 마련해주시고 대해같은 은정을 거둬 베풀어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우리러 열광의 환호성을 터쳐올리었다.

경기시작부터 맹활약을 하던 함경남도팀의 10번 박충진선수가 후반전 10분경 보기 좋은 득점으로 첫 골문을 열었다.

많은 점수를 회복하기 위해 상대팀의 골문을 무단히 위협하던 평안남도팀의 5번 김권성선수가 후반전 23분경에 마침내 동점골을 넣어 경기는 더욱 치열해졌다.

나이는 어려도 능숙한 공물기와 집단주의정신, 훌륭한 경기도덕품성을 발휘하는 선수들에게 관람자들은 아낌없는 박수갈채를 보내었다.

후반전마감까지 득점이 이루어지지 않아 승부차기가 진행되었다.

결국 경기에서는 함경남도팀이 평안남도팀을 5:4로 이겼다.

이어 시상이 있었다.

경기가 끝나자 또다시 우렁찬 《만세!》의 환호성이 경기장의 하늘가에 메아리쳐갔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끝없는 영광과 행복에 겨워 목청껏 환호를 올리며 선수들과 관람자들에게 따듯한 답례를 보내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랑티 선수들과 감독들, 심판원들의 손을 일일이 잡아주시며 그들을 고무해주시고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었다.

또한 눈물을 흘리며 격정의 환호를 올리는 경기보장성원들까지 몸가까이 부르시며 사랑의 기념사진을 찍어주시는 한량없는 은정을 베풀어주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모시고 이날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 국제친선소년회관에서는 모란봉악단의 축하공연 《세상에 부럼없어라!》가 진행되었다.

너성중창 《소년단행진곡》으로 시작된 공연무대에는 다채로운 종목들이 올랐다.

세월의 준비를 다 맞으시며 새 세대들을 혁명의 계승자, 앞날의 주인공들로 억세게 키워주시고 조국의 통성변영과 후손만대의 행복을 위한 만년토대를 마련해주신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숭고한 후대관의 세계를 되새겨주는 명곡들인 너성3중창 《장군님과 아이들》, 너성2중창 《아버지는 전선에 계신다》, 너성독창 《우리 아버지》는 관람자들의 가슴을 뜨겁게 울려주었다.

우리 학생소년들이 사랑하는 아동영화들의 주제가로 동심에 맞게 형상한 경음악과 노래편곡 《아동영화노래들을》과 《만화영화세계》는 관람자들을 동화의 세계로 이끌어가면서 축하공연분위기를 한층 돋구었다.

이 나라 부모들의 사랑을 모두 합쳐도 비기지 못할 은혜로운 품,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품속에서 행복넘치는 우리 어린이들의 밝은 앞날을 환희로운 음악세계에 담아 너성중창 《세상에 부럼없어라!》가 장내에 울려 퍼졌다.

약동하는 젊음으로 비약하는 조국의 품속에서 어린이들과 인민들의 행복이 끝없이 꽃피는 사회주의문명강국의 휘황한 태일을 생동하게 보여준 공연은 관람자들의 절찬을 받았다.

공연에 이어 진행된 축포발사는 야영소준공을 축하하는 체육문화행사의 절정을 이루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공연관람자들과 함께 야영소구내에 나오시자 장쾌한 축포성이 천지를 진감하는 속에 야영소의 하늘가에 축포들이 터져올라 천갈래만갈래의 불보라로 신비경을 펼쳐놓았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높이 모시여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부강조국건설념원이 빛나는 현실로 펼쳐지고 우리 인민과 후대들의 밝은 미래가 앞당겨지고 있음을 확신하듯 축포성이 하늘땅을 진감하고 총천하는 화광은 바다가풍치와 조화되어 절경을 펼친 현대적인 야영각들을 아름답게 비쳤다.

축포발사가 끝나자 또다시 우렁찬 《만세!》의 환호성이 터져올랐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끝없는 영광과 행복에 겨워 목청껏 환호를 올리며 전체 참가자들에게 따듯이 손을 저어주시었다.

본사기자

